

SINGAPORE
ENTRY STRATEGY 

2021 국별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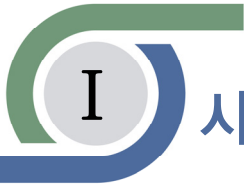
싱가포르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CONTENTS

kotra 2021 싱가포르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코로나19 경제침체 및 회복노력	4
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	5
다. 미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노력	6
라. 미-중 갈등 심화 속 싱가포르 경제	7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2. 시장 분석	14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14
나. 수출	15
다. 투자	17
라. 해외 취업	19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제협력 의제	22
가. 교역	22
나. 투자	23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4
III. 진출전략	26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26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7
3.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3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7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0
3. 2021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2
4. 2021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3
부 록	
대(對) 싱가포르 K패키지	44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1년 싱가포르, 경기침체 진입 후 '완만한 회복' 전망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싱가포르 경기는 **침체 국면에 들어섬**
 -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020년도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 $\Delta 7\% \sim \Delta 5\%$ 위축 전망(2020년 8월)
- 2021년에는 **Δ 제조·건설업 실적 개선, Δ 민간투자 증가, 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 싱가포르 통화청, 2021년 싱가포르 GDP 2020년 대비 5.5% 회복 기대(2020년 9월)
 - * ASEAN+3 Research, 2021년 GDP 제조업 및 건설업 주도로 2020년 대비 7% 성장 전망(2020년 8월)
- 단 코로나19 여파로 **실업 증가 및 민간소비 침체** 등 내수경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며, 미-중 갈등 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회복 속도 제한
 - 특히 서비스업이 싱가포르 GDP의 70%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항공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업 비중이 GDP의 8%를 차지함에 따라, 고용 타격 및 실물경제 충격 장기화 우려**
 - 또한 높은 대외 경제의존도로 미-중 갈등 양상 및 글로벌 수요 증감에 취약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5.53	5.6	5.61	5.63	5.7	5.68
명목 GDP	십억 US\$	306.3	316.6	341.86	373.27	372.06	-
1인당 명목GDP	US\$	55,331	56,455	59,990	64,567	64,830	-
실질성장률	%	2.2	2.8	3.7	3.1	0.7	-5~-7a
실업률	%	2.6	2.8	2.9	2.7	3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0.9	1.5	1.7	1.5	1.7
재정수지(GDP대비)	%	3.6	3.3	5.6	2.1	1.5	-
총수출	백만US\$	346,701	329,910	373,367	412,813	390,652	172,166
(대한(對韓) 수출)	"	14,503	14,511	16,793	15,679	15,123	8,162
총수입	"	296,876	282,995	327,707	370,650	359,180	159,990
((대한)對韓 수입)	"	18,197	17,001	16,166	14,198	13,728	7,599
무역수지	백만 US\$	49,921	46,865	45,648	42,163	31,472	12,176
경상수지	"	72,897	76,897	76,779.5	86,479.9	86,131.8	33,951.8
환율(연평균)	US\$	0.7274	0.7239	0.7243	0.73743	0.7217	-
해외직접투자	십억 S\$	724.4	836.9	850.3	858	-	-
외국인직접투자	십억 S\$	1,267.1	1,359.5	1,568	1,736.8	-	-

* 2020년은 상반기 누계, a는 연간 전망치(2020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통상산업부, World Bank, IMF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2021년 싱가포르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진입한 가운데,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는 이러한 경제 하방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 둔화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얻고자 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있음. 더 나아가 미래 싱가포르 지속가능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코자 함

가. 코로나19 경제침체 및 회복노력

□ 2020년 싱가포르 경제, 개국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 당면

- 코로나19 확산 및 ‘서킷브레이커’ 봉쇄조치*로 생산 및 소비 등 실물경제 충격, 2020년 GDP가 역성장하며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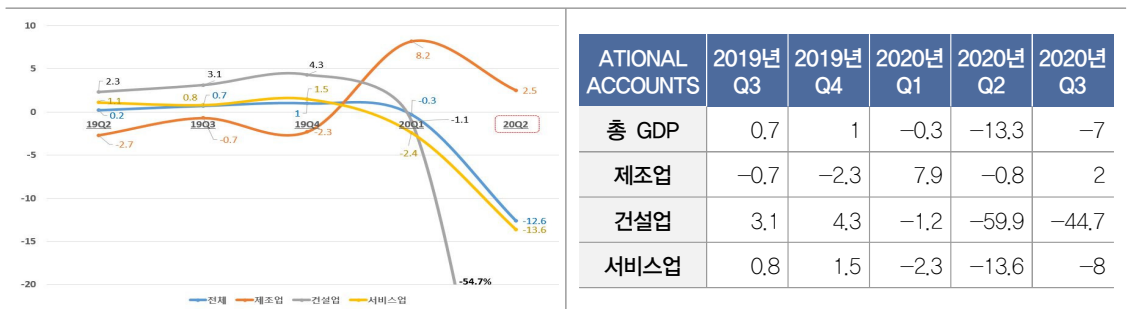
* 필수업종(의료, 금융, 치안 등) 외 사업장 및 상점 폐쇄, 건설공사 중단 등(2020년 4월 7일~2020년 6월 1일)

-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 서비스업이 전년 동기 대비 각 △54.7%, △13.6% 감소하면서 부진이 심각한 수준
- 2020년 2분기 경제지표 저점 기록 후 봉쇄조치 완화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 및 글로벌 이동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성장 경로상 불확실성 지속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

〈싱가포르 산업별 GDP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 싱가포르 정부, 경제회복을 위한 강력한 경기부양책 제시

-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경감 및 경기부양 위해 총 1,000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2조 원)가 넘는 예산을 편성(GDP의 20% 규모)

- 가계 직접소득 지원, 피해산업 세제혜택, 직원고용 급여 지원, 기업 대출 및 지급보증 등 유동성 확보 지원 등에 투입

* 차입을 통해 코로나19 재정 적자를 충당해야 하는 여타국과 달리 싱가포르의 금번 예산 중 520억 싱가포르달러를 국가 비축고에서 충당하나, 재정지출 확대로 2020년도 742억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싱가포르 통화청)

- 특히 경제 안정화에 있어서 ‘**실업 억제**’를 핵심 요소로 간주, 고용지원제도(Jobs Support Scheme)을 통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강화하여 **자국민의 일자리 유지 및 소득 보전 노력**
- 또한 금융혁신·규제완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 및 신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홍콩지역 이슈 등과 맞물려 **2020년 역대 최대 투자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 가변자본회사(VCC) 적용 특례법을 제정하여 재무제표나 주주명부 공시 의무를 없애는 등 다국적 펀드 유입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

〈싱가포르 2020년 예산안〉

(단위 : 싱가포르달러)

2020년 예산안(발표일)	규모	주요 지원 내용
Unity Budget(2월)	64억	피해산업 지원(40억), 가계생활비 지원(16억), 코로나19 사태 대응(8억)
Resilience Budget(3월)	484억	가계 생활비 지원 확대, 근로자 및 기업 일자리 지원
Solidarity Budget(4월)	51억	가계 생활비 지원 확대 및 지원시기 단축(11억), 근로자 및 기업 지원 확대(40억)
Fortitude Budget(5월)	330억	고용지원 확대, 기업 임대료 지원, 디지털화 지원 등
5차 경기부양책 (8월)	80억	기업 고용지원, 관광업 지원

자료: 싱가포르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2020년 10월 기준)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경제 발전전략 수립

-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 Heng Swee Keat, 포스트코로나 시대 ‘더 강한 도약(Emerging stronger together)’을 위한 정부정책 원칙 발표(2020년 6월 20일)
 - △상품, 서비스, 자본, 데이터,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속,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혁신 투자(보건, 생물의학,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기초 및 응용연구 지원에 200억 싱가포르달러 투자 계획)
- 더불어 미래 경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로봇공학, △전자상거래, △환경 지속가능성, △공급망 디지털화, △건축 환경 등 주요 성장분야 육성 방안 등 아이디어 발굴 노력

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 코로나19로 생활기반 및 비즈니스의 디지털 혁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비대면·비접촉 생활기반 및 비즈니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관련 IT 솔루션이 각광을 받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기존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매출을 창출하던 기업 대상, 전자결제 등 IT 솔루션 도입, 이커머스 활용 등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을 구축

싱가포르 정부, 5G 인프라 기반 구축

-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2020년까지 총 4개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싱가포르 전역을 커버하는 전국적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함
- 2020년 6월, Singtel과 StarHub-M1 합작회사가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였고, 5G 네트워크 공급업체로는 스웨덴의 Ericsson과 핀란드의 Nokia가 선정됨
- 싱가포르 전역에 5G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무인자동차, 온더고 클라우드 게임, 자동화 공장 및 항구의 스마트화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5G 관련 성장 잠재력이 큰 6개 분야로는 Industry4.0, 해양작전, Urban Mobility, 스마트부동산, 소비자정부 애플리케이션이 있음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 등 금융업계 디지털전환

-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예금·대출, 투자, 보험 외에도 기존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무역금융, 자산 거래 업무 등도 디지털 전환
- * 싱가포르개발은행(DBS), 2020년 1분기에만 디지털뱅킹 거래 건수가 1억 건 이상 증가하면서 총 디지털 거래 규모가 SGD 80억 가량 확대
- 특히 코로나19 및 정부의 이동 제한조치로 기존 오프라인 지점 방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던 50대 이상 인구의 디지털 활용 전환이 확대됨
- 싱가포르 통화청은 스마트 금융 허브를 목표로 2020년 내 총 5개(소매면허 2개, 도매면허 3개)의 디지털은행 운영 면허권을 발부할 예정이며, 디지털은행 면허권 선발 후보는 Grab, Singtel, Sea 등 14개사

□ 코로나 기간 드론 활약 및 활용분야 확대 전망

- 팬데믹 동안 군집 밀도 모니터링, 안내 및 경고 방송, 온도 측정, 방호복 및 코로나19 테스트기의 수송 등에 드론이 활용되었으며, 드론 택배배송 및 드론 음식배달 시범 서비스 성공 등 민간 분야 내 드론 활용 확대
- 싱가포르 정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의무등록제(2020년 1월), 드론 비행면허(UA Pilot License: UAPL) 취득 필수화(2021년 2월 1일부로) 등 관련 규제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드론 법안이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정부 주도로 수중드론 및 구조드론 개발 협의 등으로 5G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드론 관련 정부조달사업 기회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

다. 미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준비

□ 글로벌 첨단기술 R&D 거점으로서의 도약

- 싱가포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고부가가치 창출 단계인 R&D 거점으로서의 포지셔닝으로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얻고자 함
- 특히 아세안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 첨단기술 기업 연구개발 및 디자인 부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면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 시행 중

* 싱가포르에는 Dyson, Panasonic, Nestle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 R&D 센터가 자리해있으며, 특히 2020년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기공식에는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직접 참석하며 글로벌 기업의 첨단기술 R&D센터 유치에 적극 환영한 바 있음

□ 친환경-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녹색성장 미래도시 조성

- 204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신차 판매를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구매 장려 정책 확대 전망 (싱가포르 전기차 판매 대수 : (2017년)314대→(2018년)560대→(2019년)1120대)
 - 차량배출가스제도(VES)* 적용 확대, 전기차(EV) 보조금 및 세제 혜택**,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28천 개 보급(현 약 1,600개),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2GWp 달성 등
 - * 차량의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세금 환급과 할증료를 산출하는 제도
 - ** 2021~2023년 동안 전기차 구매 시 차 한 대 당 최대 2만 달러 환급 및 도로세 감면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한계를 오히려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시교통관제시스템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 상용화에 적극 활용하여 **미래차 GVC 내 R&D 센터로서의 역할을 고도화**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쓰레기 제로(Zero Waste Nation)' 캠페인 발표하며 자원 순환 산업 내 폐기물 관리 및 관련 친환경 인프라 역량 강화 노력
 - 2020년 9월 싱가포르 최초 폐수 및 고형 폐기물 통합처리시설 TUAS Nexus 착공, 해당 시설은 기존 투아스 하수처리장(Tuas WRP)과 폐기물 관리시설(WMF)이 합쳐진 메가 프로젝트로 2025년 완공될 예정
- 신재생에너지 육성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전력 수입 전망
 - 싱가포르는 2021년 말부터 2년간 말레이시아 전력 수입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국내 태양열 사용을 확대하고 저탄소 기술 연구에 투자할 방침
 -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싱가포르 총 에너지 수요의 2%를 태양열 에너지에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식량 공급 안보

- 식품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싱가포르 내 식량보안 강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30년까지 식품 국내생산 비율을 현 10%→30% 확대 목표 발표(2019년 3월)
 - 코로나 영향 이외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공급 혼란,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등 대응책으로 다각적인 식량 안보 전략의 필요성 대두
 - * (식량자급률 확대) 어반팜, 수직농업, 수경재배, 실내농장 등 미래농업과 배양육 등 대체식품의 개발을 통해 식품의존도 낮추기 위한 노력 지속

라. 미-중 갈등 심화 속 싱가포르 경제

□ 미-중 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존재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분쟁 범위가 기존 무역합의에서 금융·투자, 홍콩 지역적 이슈, 중국 첨단 기술·IT기업의 개인정보관리 이슈 등으로 확대·심화

- **싱가포르는 미-중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이며 양국 경쟁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 전개양상 불확실성이 싱가포르 경제에 불안요소로 작용**

* 중국은 싱가포르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싱가포르는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면 중국의 최대 해외투자국

* 미국은 싱가포르 내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누적 기준으로 인도, 중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싱가포르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음. 전체 투자 유입액의 16.6% 차지(2018년 기준)

□ 싱가포르, 미-중 IT 기업의 아시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부상

- 미-중 갈등이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심화**되고 텐센트(위챗), 바이트댄스(틱톡) 등 중국 IT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IT 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싱가포르투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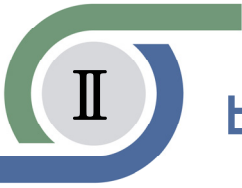
- 싱가포르 핀테크협회, 자산운용협회는 최근 중국 기업 수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2020년 9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20년 상반기에만 143억 달러 규모의 고정자산 투자가 발생하며, 2020년도에 역대 최대 투자 유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2019년 연 투자액 152억 달러)

〈주요 중국 IT기업 싱가포르 진출 동향 (2020년 10월 기준)〉

기업명	싱가포르 진출동향
바이트댄스	△사무실 규모 확장, △향후 3년 간 수십억 달러 투자 증액 및 직원 채용, △디지털뱅킹 라이선스 신청, △자체 데이터센터 설립 등
텐센트	△아시아 허브로 싱가포르 사업 확장, △해외게임 퍼블리싱 등 일부 사업 해외 이전, △자회사 위뱅크 디지털뱅킹 라이선스 신청, △직원 신규채용
알리바바	△싱가포르 시내 부동산 매입(1.4조 원), △현지 기업 투자(LAZADA 40억 달러, Grab 30억 달러), △자회사 앤트그룹(알리페이) 싱가포르 디지털뱅킹 라이선스 신청

자료: 현지 언론 종합 무역관 작성

-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IT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다수 진출한 가운데, 중국 IT기업 신규 유입 확대로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미-중 디지털 비즈니스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음
- 글로벌 IT업계의 싱가포르 투자를 선두로 동남아 IT·핀테크 시장 교두보로서 싱가포르 시장 입지가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기업친화적 정책, 대외개방형 경제를 견지하고 있음.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제약산업, 금융업, 디지털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하고 있음. 또한 자국민 고용기회 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가. 정치 환경

□ 강력한 정치적 안정성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 제시

- 50년 넘게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 2020년 7월 실시한 13대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이 61.2%의 득표율로 50년 넘는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9월 진행된 대선에서는 인민행동당 소속의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싱가포르의 일관된 정책 방향

- 싱가포르의 국도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과거부터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며,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전략을 택함
- 일찍이 정부 주도의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또한 기업친화적 사업 환경, 조세제도를 통해 내외국인 관계없이 투자 확대 유도
- 국민과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치인 부패 시 엄벌
 - * 국제투명성기구(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 싱가포르 세계 4위(한국 : 세계 39위)

- 그러나 금번 13대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WP)이 사상 최다 의석(10석)을 확보하면서 여당은 독립 이후 사상 최저의 의석점유율(89%)을 기록함.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침체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2004년부터 총리직을 맡아온 리셴룽 총리는 70세가 되는 2022년 이전 은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번 총선의 부진한 성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은퇴 계획을 보류함
 - 그럼에도 싱가포르 국민들의 여당에 대한 강한 믿음을 기반으로 차기 총리 또한 헝 스위 킷(Heng Swee Keat) 현 부총리로 굳어짐에 따라 싱가포르의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될 전망

나. 경제 환경

□ 2020년 상반기 급격한 경기 위축 후, 하반기부터 지표 개선 전환

- 싱가포르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정부의 경제봉쇄조치로 1분기 $\Delta 2.3\%$, 2분기 $\Delta 18.1\%$ 역성장하며 기술적 경기침체 진입(상반기 $\Delta 6.7\%$)
 - 국경 간 이동제한으로 숙박요식업이 직격타를 맞은 가운데, 지난 2분기 서킷브레이커 경제봉쇄조치(4월 7일~6월 1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며 건설업증이 $\Delta 58\%$ 위축됨
 - 반면, 코로나19로 디지털 시장 확대로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은 각각 2분기에 $\Delta 0.9\%$, 0.4% 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2020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 하였으며, 2020년 10월 현재 기준 $\Delta 5\sim\Delta 7\%$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Delta 0.5\sim 1.5\%$ (2월) $\rightarrow \Delta 1.0\sim 4.0\%$ (3월) $\rightarrow \Delta 4\sim 7\%$ (5월) $\rightarrow \Delta 5\sim 7\%$ (8월)
 - 특히 3분기부터 경제봉쇄 완화에 따른 조업 재개, 바이오메디컬 생산 증가로 제조업 실적이 개선되며 경기 위축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 산업별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상품제조산업	15.3	11.1	0.5	-2.5	-15.3	-1.3	-16.0
제조업	20.0	12.9	-0.2	-4.0	-19.8	-1.6	-9.0
건설업	-4.2	3.0	4.0	5.2	6.1	-0.1	-58.0
서비스산업	5.2	3.0	2.4	0.9	2.1	-3.2	-18.0
도소매업	6.1	-0.8	-4.0	-7.0	-3.4	-9.4	-21.3
운송저장업	-3.0	2.8	7.8	3.1	5.9	-9.6	-36.4
숙박요식업	4.5	3.1	2.4	4.4	5.1	-21.6	-56.1
정보통신업	6.5	5.5	4.5	3.9	5.1	3.4	-0.9
금융보험업	9.3	7.4	7.6	6.1	7.9	8.5	0.4
비즈니스서비스업	4.5	2.9	1.8	1.8	2.9	-3.0	-21.5
기타 서비스업	4.8	3.1	4.0	4.2	-0.8	-4.1	-19.8
전체	6.6	4.2	1.3	0.2	-2.1	-2.3	-18.1

주: 전년 대비, 2020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다. 산업 환경

□ 제조업

-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조업중단 등으로 9% 감소하였으나, 3분기부터는 공장 생산량이 3개월 연속(7~9월)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

- 특히 전자제품 생산지수는 지난 8월,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이후 2개월 연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팬데믹 이후 바이오메디컬, 제약산업, 바이오 공학 등 보건의료분야 제조 시장이 성장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업

- 서킷브레이커로 서비스업 수요 대폭 감소
 - 2분기 숙박요식업(-56.1%), 운송저장업(-36.4%) 등 매출이 급락하며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8.0% 위축됨
 - 특히 해외이동 제한으로 항공업 부문 피해가 극심하며, 싱가포르항공(SIA)은 2020년 1분기 역대 분기별 최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직원 급여 삭감 및 2000여 명을 정리하고 단행
 - * 코로나19 이후 싱가포르 창이 공항의 공항이용 승객이 기존의 1.5%, 항공편 수가 기존의 17%로 대폭 감소함 (탑승객 공항 이용률 세계 순위: 기존 7위 → 58위로 급락)
- 최근 국내 코로나 확산양상 안정에 따라 관광업 새로운 매출기회 모색 중
 - 여행제한조치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싱가포르 행 중국 및 동남아 국제 여행객이 증가함. 또한 자국민 대상의 국내관광 프로모션, 전국민 대상 관광 보조금(100싱가포르달러/1인) 지급 등으로 관광업이 8월 완만한 호조세를 보임
 - 또한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크루즈업의 대응책으로 '목적지 없는 크루즈'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예약주문이 출시 후 5일 내 6000여개가 넘는 등 큰 인기

〈싱가포르 관광업 수급 현황〉

		2019년 8월	2020년 7월	2020년 8월
국제방문객 수(명)		1,740,000	6,840	8,910
호텔업	객실 수입(백만 싱가포르달러)	383.5	35.1	58
	객실 이용률(%)	92.4	65.1	62.1

자료: The Straits Times

□ 정보통신업

- 싱가포르 경제위축 가운데, 정보통신업은 디지털 수요 확대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음
 - 전년동기 대비 1분기에는 3.4% 성장하였으며, 2분기에는 서킷브레이커 영향으로 소폭 위축되었으나 △0.9% 감소로 작년 수준 유지
- 2025년까지 전국적인 5G 네트워크 2개 구축 목표
 - 2020년 4월 Singtel과 Starhub-M1 공동합작회사에게 5G 운영면허권이 최종 부여됨. 이에 양 사는 2021년 1월 독립형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착수해 2025년 까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임

- 현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업체인 Singtel, M1 등은 하드웨어나 장비를 자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에릭슨(Ericsson), 노키아(Nokia), 화웨이(Huawei) 등 해외에서 5G장비를 수입하고 있는 바, 한국 기업의 단말 및 부품 진출 유망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5G 테스트를 위해 총 4,000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고 있고, M1(싱가포르 통신사), IBM, 삼성 3사 간 컨소시엄으로 5G 스마트 제조업을 위한 공장 솔루션 연구 계획 발표(2020년 5월)
 - IMDA는 향후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5G 분야로 Industry4.0를 비롯하여, 해양작전, Urban Mobility, 스마트부동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정부 애플리케이션을 꼽음
- 디지털 생태계 급성장으로 정보통신기술업 성장 유망
 - 코로나19로 장기화되는 비대면·비접촉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헬스케어, 물류, 재택근무 및 생산성 관련 IT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향후 1년 간 정보통신기술 산업 내 18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이에 정부투자 기업(DBS 2천명, Singtel 2천명, OCBC 360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데이터분석 등 IT인력 채용 확대
 - (이커머스)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해 스마트물류 및 배송, 비접촉결제, 무인 시스템 등 구축을 통한 온라인 사업 확대 및 언택트 마케팅 필요성 증대

라. 정책·규제 환경

□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채용 기준 강화

- 외국인 취업비자 최소급여 기준 인상
 - 2020년 9월 1일부 외국인 채용비자(EP) 발급을 위한 최소급여 기준을 기존 3,900싱가포르달러에서 4,500~5,000싱가포르달러로 큰 폭 인상함
- 외국인 고용의존비율 축소 방침
 - 서비스업 부문 현지인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고용의존 비율(Dependency Ratio Ceiling)을 작년 40%에서 38%로 조정, 2021년 1월부터는 35%로 축소 예정

□ 금융규제 혁신·완화를 통해 아시아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

- 다국적 금융기관들의 투자 진출 확대 노력
 - 2020년 1월, 뮤추얼 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가변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y) 적용 특례법 제정하여 재무제표나 주주명부 공시 의무를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다국적 펀드의 유입 확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디지털 협력관계 강화

-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2020년 6월 12일 뉴질랜드, 칠레와 첫 번째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서명을 완료, 현재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SADEA) 협상 진행 중이며 한국과도 2020년 6월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KSDPA) 협상을 개시함

□ 팬데믹 이후 인력이동 제한 완화 논의 확대

- (상호그린레인) 싱가포르는 현재 브루나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과 비즈니스 및 공공 목적의 단기방문을 허용하는 상호그린레인 협약을 맺고 있음
 - * 한국과는 2020년 9월 4일부터 필수 비즈니스 신속통로 시행 중
- (트래블 버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일부 국가와 일반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협상 개시

2. 시장 분석

싱가포르는 소국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작으나, △개방 경제, △지정학적 요충지, △기업친화적 제도, △선진적인 인프라, △다양성 등의 이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글로벌 기업의 유입이 활발하고 동시에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함. 따라서 싱가포르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제품과 마케팅 전략에 차별성을 두어야 함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 개방형 경제

-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국토 여건으로, 정부 주도의 대외개방형 경제 추구
 -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주의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주류, 담배제품, 자동차 및 석유제품 외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정책 유지

□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는 안정되고 일관된 정부정책, 친기업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싱가포르 내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 도모
-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7,000여 개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 60% 이상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세계 2위(한국: 세계 5위)

□ 수요 및 시장 다양성

-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및 기타(3.2%)로 구성되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
 - 또한 불교(33.3%), 기독교(18.3%), 무교(17.0%), 이슬람교(14.7%), 도교(10.9%), 힌두교(5.1%)로 종교가 다양함
 - 전체 인구의 약 30%(영주권자 포함할 경우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될 정도로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진입장벽이 낮음
- 싱가포르는 내수시장 규모 자체는 작으나, 다인종·다문화 기반의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전 세계 곳곳의 다채롭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경쟁하고 있어 테스트베드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적합

나. 수출

□ 싱가포르 교역동향

- 2019년 싱가포르 대(對) 세계 교역시장, 전년대비 수입 Δ 3.1%, 수출 Δ 5.4% 감소
 - 싱가포르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비중은 2019년 기준 약 13.4%이며 그 뒤로 말레이시아 (11.1%), 미국(10.3%) 순임
 - 한국과의 교역비중은 3.8% 수준 유지

〈싱가포르 국가별 교역 동향 및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수출	373,355	13.2	412,813	10.6	390,652	-5.4	172,166	-10.4
대한 수출	16,793	15.7	15,679	-6.6	15,213	-3.0	8,162	10.1
총수입	327,707	15.8	370,650	13.1	359,180	-3.1	159,990	-9.8
대한 수입	16,166	-4.9	14,198	-12.2	13,728	-3.3	7,599	6.0

* 2020년은 상반기 누계 기준
자료: GTA

〈싱가포르 국가별 교역 동향 및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	중국	99,433	100,075	100,672
		(14.18)	(12.79)	(13.43)
2	말레이시아	78,496	87,669	82,862
		(11.2)	(11.21)	(11.06)
3	미국	57,933	72,523	77,008
		(8.26)	(9.27)	(10.27)
4	대만	43,762	48,352	48,762
		(6.24)	(6.18)	(6.51)
5	홍콩	50,475	52,271	47,879
		(7.2)	(6.68)	(6.39)
6	인도네시아	43,101	48,189	42,969
		(6.15)	(6.16)	(5.73)
7	일본	37,543	42,161	37,020
		(5.35)	(5.39)	(4.94)
8	한국	32,922	29,868	28,926
		(4.7)	(3.82)	(3.86)
9	태국	21,860	23,853	23,014
		(3.12)	(3.05)	(3.07)
10	인도네시아	43,101	48,189	42,969
		(6.15)	(6.16)	(5.73)
	전체	701,170	782,264	749,477

자료: GTA

○ 2020년 싱가포르 비석유국내수출 성장 전망

- 싱가포르 기업청(ESG), 올해 싱가포르 비석유국내수출(Nodx)이 기존 마이너스 성장($\Delta 1 \sim \Delta 4\%$)에서 상향 조정된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는 비화폐성 금, 의약품, 전자제품 등의 수출품목이 예상외의 높은 성적을 보이며 올해 하반기 수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 싱가포르 비석유국내수출이 올해 1~8월 5.9% 성장하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11% 급락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이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
- 그러나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무역 갈등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특히 비화폐성 금 수출이 전월 대비 55.1% 상승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 동향

- 우리나라의 대(對) 싱가포르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 반도체, 화장품, 컴퓨터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 중간원료, 기기류 등임
- 2019년 기준, 대(對)싱가포르 수출은 1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Delta 3.4\%$ 감소함
 - 석유와 역청유, 금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화장품은 16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주요 상위 5개 수출품목 중 전자직접회로와 반도체는 전년대비 감소

〈대(對) 싱가포르 상위 5개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8,296	17,036	16,173	14,194	13,710
1	8542	전자직접회로	10,500	10,995	10,185	7,368	6,103
2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외)	3,927	2,516	2,485	2,782	3,021
3	7108	금	133	142	222	203	273
4	8486	반도체	56	107	142	203	200
5	3304	화장품	104	33	54	63	169

자료: GTA

□ 진입 장벽

- 싱가포르는 개방경제를 지향해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음
 - 차량, 담배, 석유, 주류제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 기준 도입, 투명한 행정,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애로사항도 없는 편임
 -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해 있어 경쟁이 치열함

□ 수출 성공 사례

- 과감하고 발 빠른 수출 품목 변경으로 현지 시장 진출 성공
 - H사는 해외 시장 트렌드 및 현지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싱가포르 소비자의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파악.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차(茶) 제품에서 삼계탕 재료로 전략 품목을 변경, 과감하고 발 빠르게 건강식품 시장 진출에 성공함

- 특히 싱가포르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활용하여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에도 자칫 바이어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객 방문 면담, 현지 매장 시찰 및 소비자 인터뷰 등 실시간 팔로업을 지원함
- 그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년대비 수출 성과가 200%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지 시장 동향 파악, 수출품목 변화, 실시간 고객 응대 등 발 빠른 마케팅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음

다. 투자

□ 싱가포르 투자 진출 동향

- 싱가포르, 2020년 상반기 고정자산투자액 143억 달러로 집계(싱가포르개발청)
 - 싱가포르 통계청은 2020년 상반기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고정자산투자액을 143억 싱가포르달러로 집계(외국인 투자 비중이 83%), 작년 동기 대비 57% 상승한 역대 최고 수치 기록
- 싱가포르 주요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싱가포르 유입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약 173.7억 싱가포르 달러 기록
 - 산업별로는 동남아시아의 금융허브인 만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약 53.4%로 가장 크고 그 뒤로 도소매업(15.7%), 제조업(12.8%) 순의 비중임

〈싱가포르 주요 산업별 FDI 현황〉

(단위: 만 싱가포르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166,793	13.2	169,963	12.6	181,736	11.6	221,650	12.8
건설업	3,541	0.3	4,057	0.3	4,784	0.3	6,349	0.4
도소매업	286,022	22.6	295,298	21.8	279,367	17.8	272,010	15.7
숙박요식업	6,366	0.5	6,502	0.5	6,798	0.4	6,318	0.4
운송저장업	40,505	3.2	27,911	2.0	29,846	1.9	32,145	1.9
정보통신업	20,878	1.6	18,991	1.0	31,943	2.0	36,039	2.1
금융보험업	583,611	46	670,005	50	861,257	55.0	927,890	53.4
부동산업	34,274	2.7	38,687	3.0	41,923	2.7	45,766	2.6
기타 서비스업	111,171	8.8	105,930	8.0	114,311	7.3	174,792	10.1
기타	14,822	1.2	15,056	1.0	15,342	1.0	13,836	0.8
총계	1,267,981	100.0	1,352,401	100.0	1,567,307	100.0	1,736,796	100.0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동향

- 우리나라의 대(對) 싱가포르 투자 진출 규모는 1968년부터 2019년 누적 기준 총 176억 달러로 2019년 투자금액 기준 진출국 6위를 기록함

* 1위 미국, 2위 케이만군도, 3위 중국, 4위 베트남, 5위 룩셈부르크

- 2019년 투자금액은 약 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5.9% 크게 증가하였으며, 홍콩 반정부 시위 및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주요 투자국인 홍콩과 일본 앞 투자가 감소(각각 $\Delta 23.9\%$, $\Delta 8.4\%$)한 수치와 대조적임

〈한국의 대(對) 싱가포르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개, 건, US백만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2019년	148	2,997	426	4,253	479
2018년	140	1,612	441	3,138	479
2017년	91	1,054	287	1,417	369
2016년	65	1,171	222	1,402	292
2015년	59	1,449	198	2,065	256
합계 (1968~2019년)	1,273	17,636	3,923	24,093	4,66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주요 경쟁국 직접투자 진출 동향

- 2018년 기준 미국이 2,89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하며 가장 높은 비중(28.7%)을 보인 가운데, 한국은 2017년의 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국 순위 18위에서 상승한 14위(1.9%)를 기록함

* 싱가포르의 절대적 투자국인 미국의 제조업 관련 FDI 유입 증가. 지난 3년간, 싱가포르에 등록된 미국 기업 수가 3,800에서 4,500로 20% 증가

* 미국 기업의 싱가포르 투자 지속 확대는 싱가포르 정부의 혁신기술 중심 투자 유치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계획, 그리고 미국의 주요 산업인 과학기술 분야 성장 계획에 기인

〈싱가포르 국가별 FDI 현황〉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243,060	31.9	279,679	34.6	336,514	35.3	289,030	28.7
2	케이맨제도	98,397	12.9	106,904	13.2	145,204	15.2	214,075	21.2
3	영국령 버진제도	109,942	14.4	117,262	14.5	125,049	13.1	128,830	12.8
4	네덜란드	99,821	13.1	102,186	12.6	115,226	12.1	122,060	12.1
5	일본	115,247	15.1	91,707	11.3	97,742	10.3	114,913	11.4
9	홍콩	48,713	6.4	56,012	6.9	61,285	6.4	60,577	6
10	중국	22,689	3	23,807	2.9	39,696	4.2	40,910	4.1
14	한국	10,681	1.4	13,919	1.7	16,523	1.7	19,508	1.9
19	대만	14,553	1.9	16,770	2.1	15,717	1.6	17,578	1.7

주: 2020년 10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 투자 진출 진입 장벽

- 싱가포르 경제는 다국적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기업 친화적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은 많지 않음

- 영어 공용화, 투명한 행정, 정치적 안정성, 간단한 조세체계, 선진화된 인프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바탕으로 Doing Business 2020,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 세계 2위 국가로 선정
-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외국인 주거비 등)이 싱가포르 투자 진출 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최근 현지 정부의 자국민 취업 확대를 위한 외국인 채용 제한 정책으로 인해 인력관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사례) 성급한 시장 확대보다 현지 고객과의 관계에 집중한 T사
 -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하여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1차적으로 싱가포르 내 시장 분석 및 고객 확보가 우선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내 고객과의 파트너십에 집중하며 예년수준의 주문물량 확보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 (실패사례) 쉬운 법인 설립, 그러나 높은 유지비용을 간과한 M사
 - 컨설팅사를 통해 최소자본금(SGD1불)만으로 합법적으로 간소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최초 설립 시 비용 외 컨설팅사에 매년 지불해야 하는 유지비(주소지 및 현지인 회사서기(Secretary) 정보 이용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인 설립 이후, 몇 년간 수입 창출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비용 분석과 사업 계획이 필요함

라. 해외 취업

□ 코로나19 싱가포르 노동시장 동향

-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 타격으로, 임시휴직 또는 정리해고 발생 증가
 - 2020년 상반기 싱가포르 전체 고용자수, 전년대비 3.7%(129,100명) 감소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
 - 실업자 대비 일자리 비율도 점차적으로 낮아져 2020년 6월 기준 0.57%*를 기록
 - * 실업자 100명당 57개의 일자리가 존재
- 서비스업 고용시장 축소
 - 관광·레저, 항공업, 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서비스업에서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분기 '서킷브레이커' 경제봉쇄조치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서비스업군 종사자에게는 무급휴가나 해고를 권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싱가포르 정부의 자국민 고용유지 정책

- 자국민의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 자국민의 경우, 항공 및 관광업 75%, 외식업 50%, 그 외 나머지 산업에서는 25%의 급여 보조금을 고용주에게 지원(월 급여 4,600싱가포르달러 기준)

○ 외국인 고용의존비율 축소방침 시행

- 서비스업 부문 자국민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고용의존비율(Dependency Ratio Ceiling)*을 2019년 40%에서 2020년 38% 2021년 1월부터는 35%로 축소 예정

* 기업체 내 자국민 직원 수 대비 외국인 직원 수 비율

○ 외국인 고용 최소급여기준 인상

- 2020년 9월 1일부 외국인 채용비자(EP) 발급을 위한 최소급여 기준을 기존 3,900싱가포르달러에서 4,500~5,000싱가포르달러로 큰 폭 인상함.

- 채용비자 중 S Pass 비자의 경우, 작년 2,300싱가포르달러에서 올해 말 2,5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

〈싱가포르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Employment Pass (EP)	대상	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 기술 보유 근로자
	최소급여	월 4,500싱가포르달러 / 금융업의 경우 월 5,000싱가포르달러
	특이사항	자국민 대상 MyCareersFuture 채용공고 기준 변경 (2020년 10월) - 기존 14일 공고 게재 → 28일 공고 게재
S Pass (SP)	대상	대학학사 또는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 기술 자격증 소지자
	최소급여	월 2,500싱가포르달러
	특이사항	자국민 대상 MyCareersFuture 채용공고 기준 변경(2020년 10월) - 기존 14일 공고 게재 → 28일 공고 게재
Work Permit (WP)	대상	건설, 제조, 해양, 가공,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최소급여	조선 없음
	특이사항	해외인력 고용 할당(Quota) 및 고용 부담금(Levy)가 있음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 싱가포르 고용시장 전망

○ 코로나19 매출악화로 구조조정 및 인건비 지출 축소 추세

- 싱가포르항공(SIA)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2019년 총 직원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인 4,300명을 감원 계획 발표

○ 싱가포르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의 높은 급여수준의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국민 우선 채용을 확대코자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금융서비스직의 경우 12월 1일부터 EP 최소급여기준을 타산업보다 500싱가포르달러 높은 5,0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하는 등 특정 산업군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둠

- 싱가포르 의회에서는 정보통신(CT)와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법률, 회계, 컨설팅 등) 분야의 외국인 취업 비자 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인력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증감률					총 인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산업 합계	32.3	16.8	-3.6	45.3	65	3,779.8
제조업(총계)	-21.2	-14.4	-10.9	-2.4	-2.4	485.8
- 현지인	-6.6	-5.6	-1	-1.8	-2.0	243.4
- 외국인	-14.5	-8.7	-9.9	-0.6	-0.3	242.5
건설업(총계)	7.2	-11.3	-38.3	-7.1	12.5	456.7
- 현지인	0.5	-1.3	-5.5	-1.7	-1.4	115.5
- 외국인	6.7	-10	-32.8	-5.4	13.9	341.2
서비스업(총계)	45.6	42.8	46	54.9	55.1	2,810.3
- 현지인	6.4	18.4	28.3	31.2	31.9	1,976.7
- 외국인	39.2	24.4	17.7	23.7	23.2	833.7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Labour Market Report 2019

□ 한국인 싱가포르 취업 동향 및 전망

-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제한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해외 취업자 수는 2018년도 대비 16.7% 증가하며 473명으로 집계

〈최근 5년간 인력 증감 현황〉

(단위: 명)

취업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업자 수	364	642	505	405	473

자료: 월드잡

-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구직활동 한계, 취업비자 기준 상승으로 인한 애로 존재
 - 코로나 이전보다는 취업환경이 어려워졌으나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진출해있고 한국시장 타깃 한국어 구사 근무자 수요가 지속 존재함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제협력 의제

가. 교역

□ FTA 체결 현황

- 한·싱 자유무역협정(KSFITA)은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은 2007년 6월 발효됨

□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6대 수입국이자 8대 수출국임
 - 싱가포르 전체 교역 비중 중 한국은 3.8% 차지
- 2020년 싱가포르의 대한 수입수출 모두 증가
 - 2020년 상반기 한국의 대(對) 싱가포르 수출액은 75억 9,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
 - 2020년 상반기 한국의 대(對) 싱가포르 수입은 81억 6,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 증가

〈싱가포르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45,365	12.3	49,637	9.4	49,079	-1.1	22,274	-5.9
2	말레이시아	38,847	20.4	42,804	10.2	41,717	-2.5	19,267	-4.8
3	미국	34,614	12.7	42,105	21.6	43,935	4.3	18,409	-15.8
4	대만	27,157	16.6	31,398	15.6	32,358	3.1	16,460	7.4
5	일본	20,470	2.9	22,259	8.7	19,429	-12.7	9,208	-5.6
6	한국	16,166	-4.9	14,198	-12.2	13,728	-3.3	7,599	6.0
7	인도네시아	15,133	12.4	15,278	1.0	15,618	2.2	7,373	-1.5
-	전체	327,707	15.8	370,650	13.1	359,180	-3.1	159,990	-9.8

* 2020년 상반기 누계
자료: KITA

〈싱가포르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54,035	26.1	50,610	-6.3	51,660	2.1	21,302	-12.3
2	홍콩	46,056	10.7	48,630	5.6	44,460	-8.6	20,768	-5.9
3	미국	24,198	6.8	31,881	31.8	34,410	7.9	19,967	14.1
4	말레이시아	39,617	13.2	44,880	13.3	41,192	-8.2	15,844	-20.7
5	인도네시아	27,951	8.4	33,012	18.1	27,375	-17.1	10,651	-20.6
6	일본	17,102	17.4	20,022	17.1	17,648	-11.9	9,268	8.1
7	대만	16,587	12.6	16,987	2.4	16,398	-3.5	8,396	11.2
8	한국	16,793	15.7	15,679	-6.6	15,213	-3	8,162	10.1
9	태국	14,678	13	15,559	6	15,371	-1.2	7,005	-2.6
-	총계	373,355	13.2	412,813	10.6	390,652	-5.4	172,166	-10.4

* 2020년 상반기 누계
자료: KITA

나. 투자

□ 우리나라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싱가포르 투자진출 규모는 1968년부터 2019년 누적 기준 총 173억 달러로 2019년 투자금액 기준 진출국 6위를 기록함
 - 2019년 투자금액은 약 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5.9% 크게 증가
 - 업종별로는 연도별 변동 폭이 큰 편인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꾸준히 높은 순위에 기록되며,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대(對) 싱가포르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증감율*
도매 및 소매업	819	292	4,441.77	896	3,748.97	29.0
금융 및 보험업	243	96	5,145.91	304	3,574.12	6.4
제조업	416	154	2,327.64	594	2,001.47	985.4
광업	61	10	1,811.52	131	1,027.69	△22.6
운수 및 창고업	186	68	1,137.51	213	1,018.86	△45.9
부동산업	101	36	1,782.24	102	1,003.86	1,520.5
정보통신업	441	167	1,051.89	528	759.37	6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4	107	729.39	331	402.53	22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2	12	504.22	103	363.17	113.5%
숙박 및 음식점업	213	42	265.03	274	235.46	700.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31	54	268.81	363	227.93	△65.0
건설업	121	39	245.85	150	197.86	287.6
교육 서비스업	82	17	28.53	89	27.86	36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	10	70.84	31	22.69	△9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	3	12.80	20	12.68	1,087.9
농업, 임업 및 어업	14	7	13.23	17	12.6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	11	3.20	37	2.04	-
합계(1968~2019년)	3,491	1,125	19,840.38	4,183	14,639.16	85.9

* 증감율: 전년대비 2019년도 투자금액 증감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1968~2019년 누계 기준)

□ 대(對) 싱가포르 투자진출 유망산업

- (딥테크) 인공지능(AI)·첨단제조·바이오 등 딥테크(Deep-tech) 분야 투자 확대 기대
 - 2020년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3억 달러 예산 투입 발표, 정부 운영 펀드 'Startup SG Equity'를 통해 제 3자 투자자와 함께 공동으로 스타트업에 투자,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 기대
 - 딥테크 중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미래자동차, 로봇 등 첨단제조업 및 스마트 농업기술, 메드테크에 대한 투자 유치에 집중할 계획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식품 공급망 혼란을 겪으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어반팜 기술 관련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
- (핀테크 & 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 분야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 ‘핀테크’
 - (핀테크) 2016년도부터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등 싱가포르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 하에 가장 활발하게 창업이 진행되는 분야
 - * 2016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통화청 주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FF)을 개최, 140개국, 60,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도약
 - (블록체인) 2019년도 ICO 규모에서 세계 3위 기록.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에 따르면, 싱가포르 블록체인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2.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6억 달러까지 성장 예측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싱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 상호 인정 논의

- 2019년 한-싱 양국 정상회담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MOU’ 체결, 2020년 8월 1일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기로 함
 - 이를 통해 화학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의약품 유통 및 관리에 대해 **직접적인 제조소 실태조사 대신** 양국에서 발급한 GMP 증명서 및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서면 평가
 -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약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마련된 품질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 및 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자료: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아세안 의약품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 아세안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59억 달러(약 30조 원) 규모이며, 연평균 약 10.4%의 급속한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자료: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 최초 디지털통상협정 논의를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 2020년 6월 22일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이 개시되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

디지털통상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

- 국가 간 디지털 교역의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협정이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등 **폭 넓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규율과 협력 요소를 포함**. 기존 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시장에 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됐으나 디지털 부문 단독 협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협정과 차이가 있음
- 싱가포르는 지난 2019년 11월 국가 간 디지털통상 합의 의지를 내비친 이후 2020년 6월 12일 뉴질랜드, 칠레와 첫 번째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서명을 완료, 이어서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SADEA)을 진행한 상태임

- 코로나19사태로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디지털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제도적 협력 기반을 확충
 - 디지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합의에 힘입어 우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및 아세안 디지털 시장에서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III 진출전략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 제도 및 대외개방형 경제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허브로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내수시장이 작고 물가가 높으며, 브랜드 간 경쟁, 인력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전략 수립이 필요함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 및 스타트업 투자 유치 유망 •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있어 친환경, 지속가능성 가치에 중점 	지속가능성 고려, 장기적 관점 접근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제품·서비스 차별화 • 온라인플랫폼, 스마트물류 및 배송 시스템 구축 • 최소발주수량(MOQ)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 	온라인 채널에 집중, 디지털세대 소비를 집중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정부 주도 ICT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 • 동남아 시장 진출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 	딥테크 시장 공략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화된 제품 특성 및 마케팅 통한 경쟁력 강화 	K-브랜드 이미지 강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1년 진출전략	
구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토목·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개발 메가 프로젝트, 21년 재개 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급행열차 등 코로나19로 연기된 메가 프로젝트 재개 전망 - 환경친화적 설계 및 에너지 효율 방안 등 전략 수립
홈코노미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홈코노미' 소비 트렌드 예의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필수품 수요 대폭 확대 및 '집콕' 품목 각광 - 이커머스 활성화로 디지털 환경 구축 필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안보 강화 정부목표에 따른 식품 산업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한국식품 진출 유망 - '프리미엄', '건강' 등 핵심 소비 트렌드 주목
에듀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AR/VR 등 신기술 접목한 에듀테크 각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 에듀테크 도입 확대 추세 - 에듀테크 솔루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이 중요

포스트코로나 시대 싱가포르 정부 정책 및
시장 트렌드 변화 기반 전략 수립

가. 국토개발 메가 프로젝트 재개 주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19로 프로젝트들이 중단 또는 연기되었으나, 2021년에 재개 전망
- 특히 메가 프로젝트인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고속철도 프로젝트 본격 착공 예정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19로 건설 중단 및 프로젝트 입찰 연기
 - 건설근로자 집단감염 및 공사 중단령으로 MRT 지하철 확장, 창이공항 제5터미널 건설 등 공공부문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민간부문 건설수요 대폭 감소
 - 그러나 3분기부터 공사가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며, 내년에 입찰 재추진 예정임에 따라 2021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본격 착공될 전망

* Cross Island MRT(2021년 2분기), Jurong Region Line MRT(2020년 4분기)

2020년 코로나19 싱가포르 건설 시장 동향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이며, 특히 건설노동자 기숙사 집단감염 및 건설공사 중단령(2분기), 건설자재 공급 차질 등으로 2020년 2분기 생산이 전 분기 대비 97.1% 위축됨
- 싱가포르 건설청(BCA)은 2020년 건설업 수요가 기존 전망치(280~330억)에서 100억 싱가포르달러 하향 조정된 180~230억 싱가포르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함(9월 17일). 이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터미널5 등 공공부문 건설프로젝트가 연기되고 민간부문 건설 수요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급행열차 메가 프로젝트 재개 전망
 - 말레이시아 재정상황 및 코로나19로 지연된 **조호바루-싱가포르 급행열차(RTS) 프로젝트** 최종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 본격적으로 착공될 전망
 - 또한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를 90분 내로 연결하는 고속철(HSR) 프로젝트 또한 올해 말 협상 완료 전망

* 싱가포르 리센롱 총리, 올해 말 상-말 고속철의 사업변경안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싱-말 노선 프로젝트 진행 상황(2020년 10월 기준)〉

연번	노선명	내용 및 진행상황	개통 예정
1	조호르바루-싱가포르 급행열차(RTS)	- 싱가포르 우드랜드(Woodlands)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Johor Bahru) 지역을 잇는 경전철 - 총 4km 거리 - 2020년 7월 30일 협상 완료, 2021년 착공 전망	2026년 말
2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HSR)	- 싱가포르의 주롱리스트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잇는 메가 프로젝트 - 총 350km(말레이시아 335km, 싱가포르 15km) - 2020년 말까지 사업 중단된 상태	2031년 초 (2018년 기준)

자료: 싱가포르육상교통청(LTA)

- 싱가포르 고가도로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싱가포르 서부의 Tengah 마을로부터 판 아일랜드 고속도로(PIE)를 연결하는 공사가 2027년 까지 완공될 전망이며,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고가도로, 도로분기점 등을 포함하는 건설 공사 입찰을 2020년 말 내로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부 조달 프로젝트 예의 주시 및 장기적 관점 접근 필요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표한 육상교통 마스터플랜 2040에 따르면 Jurong Regional 지하철노선과 Cross-Island 지하철노선의 추가로 기존 총 229km의 노선을 2040년까지 360km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10년 간 철도망 정비를 위해 600억 싱가포르달러 예산을 투자할 계획임에 따라 지하철 공사 뿐만 아니라 지하철 차체 및 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까지 확대 가능

- * Thomson-East Coast Line(TEL) 정비, North East Line Extension과 Downtown Line 확장, Jurong Region Line(JRL) 정비, 도시철도(MRT) 순환선 완공, Cross Island Line 1단계 완공, North-South and East-West Lines 업그레이드

-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부문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친환경, 공존 등의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바, 환경친화적 설계 및 에너지 효율 방안 등 전략 수립 필요

-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 인프라, 주거시설 설계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보건·인권·환경의 가치를 보다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취약계층 중심으로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10만여 명 수용이 가능한 신규 기숙사 건설 등 주거 인프라 개선 계획 발표

나. ‘홈코노미’ 키워드로 소비재 시장 변화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소비심리 위축은 물론 각국의 여행제한조치로 소매업이 크게 위축됨
- 한편 생활필수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컴퓨터·통신기기, 가구·가정용품의 소매판매 상승
- 온라인판매 비중이 대폭 증가하며 관련 이커머스 및 IT솔루션 산업 성장 가속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로 인한 ‘홈코노미(Home+Economy)’ 소비 트렌드 등장

-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위생용품, 청소 도구 등 자주 사용하는 소비재를 한 번에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등 생활필수품 수요 및 1회 구매량이 확대됨

- * 생활필수품 수요 증가로, 슈퍼마켓·하이퍼마켓(28.6%), 편의점(3.8%), 컴퓨터·통신기기(27.4%), 가구·가정용품(9.6%)의 소매판매지수 전년 동기비 상승

- 이커머스 성장 가속화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 성장 기회
 - 2020년 5월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판매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4% 달성
 - * 2020년 소매업 온라인 판매비중 변동추이: (1월) 6% → (5월) 24% → (7월) 11%
 - Qoo10 Singapore, 2020년 상반기 온라인 주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는 등 이커머스 플랫폼 매출액 급증
 - * 싱가포르 전체 소비자의 88%가 서킷브레이커 동안 온라인쇼핑을 이용했으며, 특히 그 중 3분의 2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번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을 처음 이용한 것으로 응답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집콕 라이프'로 인기 소비재 품목 변화
 - 패션이나 색조화장품 등 기존 싱가포르 인기 소비재 품목보다 스킨케어, 가구, 전자기기, 홈트레이닝 용품, 엔터테인먼트 관련 용품 등의 품목 판매가 크게 증가
 - 홈오피스를 위한 컴퓨터 부속품, 마우스, 키보드, 화상회의를 위한 웹캠, 책상, 홈극, 홈베이킹, 홈카페 관련 조리도구 및 소비재가 증가함
-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및 디지털환경 구축
 - 온라인 판매 서비스 구축 또는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통한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필요
 - 물류 및 배송, 비접촉결제, 무인 시스템 등을 통한 '뉴 리테일'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필요
- 제품 및 기업 신뢰성에 있어서 이번 팬데믹으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이 보다 확대됨
 - SNS 또는 자체 채널을 통해 싱가포르 소비자와의 유통 현황, 거래 차질 발생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충성 고객 확보 필요

다. 식량 안보 강화 정부 목표에 따른 식품 산업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는 한정된 국토로 인한 높은 토지 비용 및 토양과 물의 부족, 인력 제약으로 인한 높은 운영비 등의 한계로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늘어나는 인구 수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대응, 스마트농업의 성장이 유망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 장기화로 싱가포르 내 식량 공급난 발생 가능성 대두
 - 글로벌 공급망 혼란 및 일부 국가의 식품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싱가포르 내 식량 공급난 발생 불안심리가 조성되며, 식료품과 생필품 사재기로 이어짐
 - * 싱가포르 내 농업용 부지 비중은 1%로 채소 소비량의 13%, 생선 9%, 달걀 24%만을 국내에서 생산

-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30% 달성(30 by 30)을 목표로 식량보안 강화 노력
 -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수직농업, 수경재배, 어반팜, 배양육 등 미래 농업의 연구 및 개발 투자 지원
 - 싱가포르 식품청은 국내 농업생산자의 생산 가속화를 위해 3000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하는 30×30 Express Grant 발표(2020년 4월)
 - 제품 포장 겉면에 '국산 농산물'임을 표기하는 'SG Fresh Produce' 로고를 부착해 국내 생산 식품 소비 장려
 -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9월 지상주차장 옥상 위 어반팜 조성을 위한 공공입찰을 완료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 식품 소비 키워드 활용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 (프리미엄) 싱가포르는 '파인 다이닝'이 발달해 프리미엄 시장의 발달이 적합함. 한류의 영향과 함께 샤인 머스켓, 머스크멜론 등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한국 프리미엄 농식품의 인기가 커지며 현지 보급률이 늘고 있는 추세
 - (건강식품)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저설탕, 비건 식품, 유기농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제품 차별화 필요
 - (간편조리식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식료품 수급에 애로가 생길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라면, 통조림 등 가공식품 및 간편조리식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 특히 싱가포르 내 한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의 간편조리식품은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
- 비관세장벽 허무는 정부 간 합의 통해 식품 수출 확대 도모
 - 싱가포르는 해외 육가공품의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기존에는 한국산 돈육 제품의 반입이 금지되었으나, 2020년 5월 한국산 돈육 통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 수출 협의를 완료, 한국산 돈육 통조림 새로운 수출 기회 창출
- 식량보안 강화 위한 스마트 농업 산업 성장 전망
 - 어그테크, 배양육 등 어반팜 및 스마트 농업 연구 개발 및 관련 업계 진출 유망

라. 로봇, AR/VR 등 신기술 접목한 에듀테크 각광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자국민의 평생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간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배정하고 있음
 - * 2019년 교육 투자 규모 132억 싱가포르달러 배정(국가 전체 예산의 약 13%)
- 싱가포르 정부는 Smart Nation 목표를 위한 노력에 발맞춰 에듀테크 산업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음
 - * 2019년, 300여개가 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활동함으로써 향후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 기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일환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에듀테크를 적극 도입하여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과 디지털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함

* 초등학생을 위한 필수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기본적인 코딩 교육 중

○ 에듀테크 스타트업 육성

- 싱가포르 기업청(ESG)은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싱가포르 및 동남아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드 자본 회사이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Spaze Ventures와 협력, EduTech Accelerator 프로그램인 'EduSpaze'를 운영

- 또한 협업 촉진과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및 연구기관(A*STAR) 등은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보조금 및 자금 지원

○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에듀테크 회사들의 성장이 보다 가속화되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로봇, AR/VR,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에듀테크 제품에 접목시킴으로써 '몰입화' 및 '개인화' 교육방식에 맞춰 제품의 경쟁력 제고 필요

-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활용 시 소비자의 신뢰 확보 가능

○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에듀테크를 친환경 분야에 접합하면 정부 기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

○ KOTRA 사업에 참가하여 싱가포르 및 동남아 에듀테크 시장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협업 프로젝트 기회 모색

3.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스마트시티 인프라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싱 정상회담 시 양국 스마트시티 기술 및 노하우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잠재적 협력분야가 언급됨에 따라 싱가포르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세안 제3국 공동진출방안 모색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9년 11월 한-싱 정상회담 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술, 통합시설 관리, 지속가능 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술교류, 정보공유 및 시범사업 추진 논의
- 세계도시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 2021)가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 : 분열된 세계에의 적응'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6월 20~24일) 예정임에 따라 한국 지자체의 선진 스마트시티 기술 및 우수성 홍보 및 협력 기회 발굴 기대

스마트네이션,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보통신기술 도입 프로젝트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개발노하우를 활용, 국가 주도로 도시 교통·수처리·공공 데이터 등 각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중
 -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① 생산성 향상, ②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③ 노령화 인력지원, ④ 국가 정체성 강화 등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14년 11월 '스마트네이션 플랫폼' 구축계획 선포
- * 스마트네이션 : 싱가포르 전역의 센서 네트워크화, 전역에서 수집된 빅데이터의 AI 분석을 통해 교통, 에너지, 의료 등 공공 부문의 효율성 개선 목표

〈스마트네이션 추진 분야〉

분야	세부내용
Strategic National Projects	전자결제, 디지털신원, 스마트 국가 센서, 스마트 모빌리티 등
Urban Living	스마트 노인 경보시스템, 스마트 타운 조성 등
Transport	자율 주행차 등
Health	의료용 로봇, 원스탑 헬스허브 등
Digital Government Services	OpenCerts(블록체인기반 인증플랫폼) 등
Startups and Business	핀테크 샌드박스, PDD(풍물디지털지구) 등

자료: SNDGO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양국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컨퍼런스나 글로벌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의 제품 및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
- 매년 KOTRA에서 개최하는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포럼' 등을 통해 관련 정부기관·기업과 네트워킹 및 관련 추진계획 정보 공유

* World Cities Summit 연계 한-싱 스마트시티 상생협력 상담회 및 포럼(2021년 6월 20~24일(예정))

나. ICT 산업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비즈니스 등 디지털화로 ICT 솔루션에 대한 수요 확대
 -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 따른 양국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 글로벌 IT 기업의 싱가포르 투자 확대에 따라 싱가포르의 동남아 시장진출 교두보로서의 입지 강화
- *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도 활성화 되어 '글로벌 IT·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싱 디지털 통상 협정에 따라 양국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기반 마련
 - 2020년 6월 22일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이 개시되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
 - * 싱가포르는 EIU 디지털경제지수 8위(한국 13위), IMD 디지털경쟁력평가 2위(한국 10위), WIPO 글로벌혁신지수 8위(한국 11위) 등 높은 디지털 경쟁력 보유
- 2025년 5G 네트워크 구축 목표
 - 2025년 까지 싱가포르 전역에 2개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지 이동사 싱텔과 스타허브-M1의 합작회사 주도의 구축 예정
- 싱가포르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발표(2019년 11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AI 실용화 범위(스마트 시티, 운송 및 물류, 헬스 케어, 교육, 안전 및 보안) 확대 목표로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주력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코로나19로 장기화되는 비대면비접촉 생활로 인해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하며 헬스케어, 물류, 재택 근무 및 생산성 관련 IT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음
- 또한 2025년 5G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무선자동차와 클라우드 게임,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분야 진출이 유망함
- *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는 전 세계 상위 수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 또한 2019년 기준 78%에 달함. 전국 4G 및 LTE 보급률은 90%대임
-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통신 **외국기업과의 협력과 투자유치 지원**을 지속함. 또한 '스마트네이션' 전환 목표 하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첨단 ICT 솔루션 수요가 높은 바 G2B 진출 유망

다. 바이오메디컬 산업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글로벌 전염병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및 다자적 대응 필요성 대대
-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여 싱가포르 정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및 보건시스템 확충
- 한-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 논의 및 시범사업 시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글로벌 팬데믹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보건 협력 중요성 대대**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범국가적 공조 체계 및 다자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
 - 특히 국가 간 전염병 진단역량 강화협력,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생산·유통, 방역 노하우 공유 등에서의 협력 기회 확대
- **한-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상호 인정 추진**
 - 2020년 8월 1일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기로 함
 - *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의약품 유통 및 관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조소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국에서 발급한 GMP 증명서 및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서면평가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스마트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노력**
 -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시설 확대, 의료 전문가 육성,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건부문 효율화를 위하여 IoT 헬스케어·원격진료 등 헬스케어 첨단기술 육성을 지원
 - * 싱가포르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5%로 고령사회이며, 2030년에는 24%를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싱가포르 정부의 스마트 보건시스템 육성 및 투자 확대에 따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첨단 헬스테크 스타트업의 진출이 유망
 - * 로얄 필립스, 싱가포르 내 의학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AI) 사용률이 28%로 조사대상 15개국 중 3위를 기록,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각종 디지털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높음
- 인도네시아 등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제3국 첨단 스마트병원 등 의료시설 공동 설립 투자, 의료진 파견 협력, 첨단 의료기술 공동연구와 연구진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4803	수입관세율(%)	0
	수입액 (2019년/US\$천)	7,645	대한수입액 (2019년/US\$천)	165
위생물티슈 	선정사유	-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생물티슈는 필수품이 되었으며, 한국의 물티슈 및 기타 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좋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 99% 항균효과가 있는 알코올 함유 60% 이상의 위생물티슈 및 아기용 순 물티슈 제품의 수요 급증		
	경쟁동향	- 글로벌 대형기업인 Reckitt Benckiser사의 Dettol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Kimberly-Clark, 일본의 Pigeon 등이 선호도가 높음		
	진출방안	- Qoo10, Lazada, Shopee 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낮은 초기 비용을 이용하여 온라인 매출 및 현지 인지도를 증대하고, Guardian, Watsons 등과 같은 오프라인 드럭스토어로 진출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		
품목명 2	HS Code	2106	수입관세율(%)	0
	수입액 (2019년/US\$백만)	422	대한수입액 (2019년/US\$백만)	6
간편식 	선정사유	-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며 재택근무가 점차 뉴노멀로 자리 잡는 가운데,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고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시장동향	- 라면, 파스타류와 같은 건식 즉석음식에서 벗어나 국, 밥 등의 비교적 건강한 식사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CJ사의 Bibigo 브랜드를 선두로 현지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음		
	경쟁동향	- CJ와 같은 국내 대기업 브랜드 식품류가 현지 대형마트 및 한인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국밥류의 간편식이 아직 보편화 되어있지 않아 경쟁력이 있음		
	진출방안	- 현지에서 인기 있는 식사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외브랜드 보다는 CJ와 같은 국내 대기업 브랜드와의 차별성이 필요함		
품목명 3	HS Code	2936	수입관세율(%)	0
	수입액 (2019년/US\$백만)	213	대한수입액 (2019년/US\$백만)	13
건강보조식품 	선정사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를 통한 면역력 향상과 균형적인 영양섭취에 대한 관심 상승		
	시장동향	- 팬데믹 이전에는 당뇨와 같은 성인병 예방위주 식품의 수요가 높았으나, 지금은 학생 및 젊은 직장인들을 타겟팅한 면역력 향상 위주 비타민 식품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경쟁동향	- GNC 등 해외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며, 한국산 보조식품의 브랜드 밸류가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음		
	진출방안	- 싱가포르의 엄격한 건강보조식품 가이드라인 및 인증 확인 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현지 인지도 확대 필요		

<p>품목명 4</p> <p>홈트레이닝기구</p> 	HS Code	9506	수입관세율(%)	0
	수입액 (2019년/US\$백만)	109	대한수입액 (2019년/US\$백만)	2
	선정사유	- 헬스장, 요가학원 등 실내운동장소 입장이 많이 제한된 현재, YouTube 등 매개체를 보며 운동을 따라하는 '홈트레이닝'이 추세이며 이에 따른 기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시장동향	-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한 판매가 월등히 높으며, 주 고객 층은 20~30대 초반 젊은 나이대임. 풀업바, 밴드, 요가메트 등 브랜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가성비와 디자인에 민감함		
	경쟁동향	- 주로 값싼 중국재가 대부분이며, 해외 유명 브랜드 기구는 가격 차이로 구매 비중이 적음		
진출방안	- 가격경쟁 보다는 제품의 우수한 디자인과 재질, 효과성 강조 필요			
<p>품목명 5</p> <p>프리미엄주류</p> 	HS Code	2203	수입관세율(%)	16
	수입액 (2019년/US\$백만)	89	대한수입액 (2019년/US\$백만)	3
	선정사유	- 한국산 맥주, 소주, 막걸리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시 구매보다는 이커머스로 다량구매 해 집에서 소비하는 추세임		
	시장동향	- K-Wave 매개체를 통해 한국주류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 서양 브랜드를 벗어나 새로운 맛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짐		
	경쟁동향	- 싱가포르 Asia Pacific Breweries사는 싱가포르에서 Tiger, Heineken, Anchor 등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외 네덜란드, 태국산 수입 주류의 비중이 큼		
진출방안	- 특정 지역성을 강조한 수제 맥주, 새로운 맛의 소주 등 제품 및 마케팅을 차별화하여 소비자 공략			
<p>품목명 6</p> <p>주방 소형가전</p> 	HS Code	851660	수입관세율(%)	0
	수입액 (2019년/US\$백만)	53.5	대한수입액 (2019년/US\$백만)	0.12
	선정사유	- LG, 삼성과 같은 대기업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한국산 소형 가전기기에 관심 증가		
	시장동향	- 가장 많이 팔린 가전은 전기밥솥, 주전자, 커피머신, 에어프라이어 순		
	경쟁동향	- 유럽산 브랜드(Groupe SEB, Philips Electronics), 일본(Goldland International, Panasonic) 등이 약 37% 점유율 차지		
진출방안	- 한국 식품을 응용한 제품의 개발, 스토리텔링 - 한국의 우수한 디자인을 장점으로 어필 - 한국 드라마 열풍을 통한 제품 홍보(최근,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전기밥솥 큰 인기)			
<p>품목명 7</p> <p>애완동물 용품 및 사료</p> 	HS Code	230910, 420100	수입관세율(%)	0
	수입액 (2019년/US\$백만)	247	대한수입액 (2019년/US\$백만)	0,015
	선정사유	- 싱가포르의 반려동물 개체 수가 80만 마리로 파악되며, 꾸준히 증가세		
	시장동향	- 애완동물용: 2019년 2,700만 싱가포르달러로 전년대비 3% 성장 - 사료: 2019년도 1억 2,000만 싱가포르달러로 전년대비 3.9% 성장		
	경쟁동향	- 태국과 미국산 제품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 차지 - 주요 진출기업으로는 Merial Asia Pte Ltd, Pet Lovers Centere Pte Ltd, Mars Foods Inc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매장판매가 압도적(79.9%)이나, 온라인 채널 판매 비중이 빠르게 증가 - 고품질 한국산을 강조한 전략적인 마케팅 유리 		
품목명 8	HS Code	210410, 210420	수입관세율(%)	0
프리미엄 영유아 식품 	수입액 (2019년/US\$백만)	258	대한수입액 (2018년/US\$백만)	0.28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으로 인해 한 가구당 자녀 수가 감소하며 유아용 식품 소비 인구는 줄었으나, 고가의 프리미엄 유아용 식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약 2억 3,4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 전년대비 4% 성장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미국 Abbott Laboratories(Gain, Pediasure, Similac 등 브랜드 보유)가 시장점유율 38.1%로 1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사태 기점으로 온라인 마켓 매출 확대됨에 따라 유통채널 다양화 전략 - 엄마(Mom)와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합쳐진 '맘플루언서'와의 SNS 콜라보 등 마케팅 - 고급 성분·유기농 등을 강조한 마케팅 유리 		

품목명 1		
헬스케어	선정사유	- 초고령화 사회, 공공보건 수요 확대
	시장동향	- 2019년 싱가포르 헬스케어 총 지출액은 202억 달러로, 연평균 10.8% 속도로 성장하며 2023년까지 312억 달러에 도달 전망
	경쟁동향	- 정부 주도로 글로벌 제약사 유치 노력 결과,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7개사가 생산 설비를 가동, 30개 본사, 50개 R&D센터, 50개 제조설비 유치
	진출방안	- 원격진료, IoT 기반 헬스케어, 질병 데이터 분석기술 등 스마트 의료기술 관련 현지 의료기관 및 의과대학 협력 확대
품목명 2		
콘텐츠	선정사유	- 한류 콘텐츠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 및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콘텐츠 수요 증가 예상
	시장동향	- 5G 구축 및 콘텐츠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 다양한 민족 구성으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문화 기반 콘텐츠 공급
	진출방안	- 현지 문화, 종교, 정치, 국토 분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사전 이해 - 현지업체와 공동제작 통해 현지화 접근 공략
품목명 3		
핀테크	선정사유	- 시장 규모는 작으나 최근 2~3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 향후 아세안 시장 성장에 따라 유망
	시장동향	- 지속적인 규제완화 등으로 신기술 도입에 유연 - 핀테크 중 자산관리, 디지털뱅킹, SME에 강점 - 특히 싱가포르 통화청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신규 투자 발생 전망
	경쟁동향	- 현지 핀테크 기업(기업가치) : TenX(159백만 달러), Quaine(123백만 달러), Kyber Network(105백만 달러) - 최근 동향: 최근 중국 거대 IT기업(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이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신청하며 시장 진입을 계획함에 따라 경쟁 심화
	진출방안	-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지 파트너와 협력 및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장 진입기회 모색
품목명 4		
SW	선정사유	-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아세안 시장 진출 유망
	시장동향	-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환경을 바탕으로 첨단 SW 시장 선도
	경쟁동향	- 글로벌 거대 SW기업이 진출해있으며, 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
	진출방안	- 현지 파트너 발굴, 마케팅 성과 등을 거쳐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 - 현지 정부 공공조달 수요 주목

품목명 5		
에듀테크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이러닝 콘텐츠 및 플랫폼에 대한 관심 증가 - 교육열이 높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큼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매년 교육 부문에의 예산 투입을 확대하며, 정부차원에서의 교육방식 개선 및 혁신을 도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전문 학원 위주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VR,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 코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 - 한국의 미용, 패션, 음식, 한국어 등에 관한 에듀테크 콘텐츠 진출 유망

□ 중소·중견기업 진출 유망 제조업 분야 수출 지원 사업

- 한국 조선해양가스 포럼(조선해양가스 설명/상담회)(9월)
 - 시기/장소 : 2021년 9월 13~16일/싱가포르 EXPO
 - 주요 내용 : 조선해양가스 전문 전시회(Gastech 2021)와 연계하여 국내 기술력 홍보 및 산업 동향 설명회, 글로벌 기업 등과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한국-싱가포르 미래형 스마트시티 진출 협력 사업

- 한-싱 스마트시티 상생협력 상담회 및 포럼(6월)
 - 시기/장소 : 2021년 6월 20~24일/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Convention
 - 주요 내용 : 'World Cities Summit 2021' 연계, 스마트시티 관련 정부·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 및 컨퍼런스 진행

□ 아세안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 KSF 연계 싱가포르 인기 온라인 플랫폼 활용 온라인 판촉전
 - 시기/장소 : 2021년 10월 중/싱가포르 인기 온라인 플랫폼(Qoo10, Lazada 등)
 -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 메인 배너 활용 판촉, 인플루언서 활용 판촉 등

□ 동남아 스타트업 허브, 싱가포르 진출 지원

- 싱가포르 거점 CVC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사업
 - 시기/장소 : 2021년 연중/싱가포르
 - 주요 내용 :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CVC 투자전략 설명회 및 1:1 상담 등
- 싱가포르 핀테크 전시회, Singapore Fintech Festival 참가(11월)
 - 시기/장소 : 2021년 11월/Singapore Expo
 - 주요 내용 : 핀테크 진출 설명회, 전시 쇼케이스 및 1:1 상담, 피칭 기회 등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동남아 스타트업 허브, 싱가포르 진출 지원	○ 싱가포르 거점 CVC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사업 -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CVC 투자전략 설명회, 개별상담회	연중/ 싱가포르
2		○ 핀테크 전시회 (Singapore Fintech Festival) 참가 - 핀테크 진출 설명회, 전시 쇼케이스 및 1:1 상담회	11월/ 싱가포르

□ KMOVE 싱가포르 취업박람회

- 싱가포르 내 구직자를 위한 KMOVE 싱가포르 취업박람회
 - 시기/장소 : 2021년 중/싱가포르 Suntec Convention Center(잠정)
 - 주요 내용 : 싱가포르 내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법령제정/예산일정 : 외투법, 에너지법 개정 등 법령 개정 및 예산 발표
- 무역협정 : FTA, CEPA 등 무역협정 협상시작/완료/체결/발효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2020년 내	-
전기차 대상 정액세 부과 예정	2021~2023년 단계적 실시	-
드론 비행 면허 의무화	2021.2.1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행사 : 대형 전시회, 포럼 등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Sea Asia	2021.4.20.~22	-
ConnectTech Asia	2021.6.9.~11	-
Singapore International Water Week	2021.6.20.~24	-
World Cities Summit 2021	2021.6.20.~24	-
Food and Hotel Asia - Food & Beverage	2020.6.22.~25	-

1. 한-싱가포르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싱가포르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현황

□ 싱가포르의 경제협력 잠재력

○ 동남아 비즈니스·금융 요충지로, 신남방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

- ASEAN 창립의 핵심 멤버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와 아세안투자지대(AIA) 설립 주창하는 등 역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 수행
- 동남아 유입 외국인직접투자액의 53%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강점, 정치적 안정성, 선진 인프라 등으로 역외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

○ 미래 첨단기술 및 디지털 혁신 글로벌 선두주자

- * IMD, 「Smart City Index」 1위,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2위
- * KPMG, 「2020 글로벌 기술산업 혁신조사」1위, 「국제 자율주행차량 준비도」 1위

○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연구역량 및 보건 시스템

- * MTA, 「의료관광지수」 2위로 연 50만 명의 의료관광객 유치(25만 명이 인도네시아 국민)
- * Nesweek, 「2020 세계병원순위」 싱가포르종합병원(SGH)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위권

□ 싱가포르와 주요국 간 경제협력 현황

〈주요국의 대(對) 싱가포르 경제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중·싱가포르 FTA 체결, 중국은 싱가포르의 최대 상품교역 대상국, 싱가포르는 중국의 최대 투자유치국 * 2018년 기준 싱가포르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전체의 15%를 차지, 중국에의 직접투자는 1,409억 싱가포르달러로 전체의 16% 차지 - 양국은 상·중 양자협력 공동위원회(JCBC)를 토대로 보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실리적 연관관계를 강화 * 총칭전략연계성이니셔티브(신국제 육로·해상 교역회랑), 일대일로 등 양자협력 프로젝트 추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미·싱가포르 FTA 체결,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의 최대 투자유치국, 최대 서비스교역 대상국, 세 번째 상품교역 대상국임 * 석유(엑스모빌), 물류(DHL), IT(Google), 항공(P&W), 금융(JP Morgan) 등 4,200여개의 미국기업 진출 - 상-미 간 양자 무역 증진에 기여하는 인프라, 무역, 통관 간소화 등 협력 및 사이버 안보, 인프라 금융 등의 신규 분야에서 협력 확대 * 미국의 싱가포르 등 대(對) 동남아 누적투자액은 대(對) 동북아(한·중·일) 누적투자액을 넘어섬 * 세금정보교환협정, 해외금융계좌신고법 도입, 이중과세 방지협약 논의 등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제3위 교역국 - 해상경계 분쟁 등 갈등요소가 존재하나,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 모색 - 조호바루-싱가포르 간선급행 철도 연결(RTS), 상-말 고속철도(HSR) 프로젝트 등과 같이 상-말 양국이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있어 상호 윈윈(win-win)하는 접근법을 추진

□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현황

○ 1975년 8월 수교 이래 교역·투자·건설 부문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유지

– 글로벌 교역 질서에 대해 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제 유지 등 한국과 공통된 의견 공유

○ 2006년 한-싱 FTA 발효, 아세안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 강화

– 2019년 기준, 한국의 대(對) 싱가포르 수출액은 12,768백만 달러 규모이며, 싱가포르는 한국의 수출 대상국 7위, 수입대상국 16위이며, 한국은 싱가포르의 수출대상국 9위이자 수입대상국 7위로 상호 간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

○ 최근에는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순방, 2019년 11월 리셴룽 총리 방한 양국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

–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며, 대한 투자로는 제4위인 동시에 한국의 제9위 투자대상국

〈한국의 대(對) 싱가포르 수출 관련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출액	15,011	12,459	11,652	11,782	12,768
수출증감률	-36.8	-17.0	-6.5	1.1	8.4
무역수지	7,069	5,653	2,747	3,807	6,108

자료: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 국가별 교역 동향 및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	중국	99,433 (14.18)	100,075 (12.79)	100,672 (13.43)
2	말레이시아	78,496 (11.2)	87,669 (11.21)	82,862 (11.06)
3	미국	57,933 (8.26)	72,523 (9.27)	77,008 (10.27)
4	대만	43,762 (6.24)	48,352 (6.18)	48,762 (6.51)
5	홍콩	50,475 (7.2)	52,271 (6.68)	47,879 (6.39)
6	인도네시아	43,101 (6.15)	48,189 (6.16)	42,969 (5.73)
7	일본	37,543 (5.35)	42,161 (5.39)	37,020 (4.94)
8	한국	32,922 (4.7)	29,868 (3.82)	28,926 (3.86)
9	태국	21,860 (3.12)	23,853 (3.05)	23,014 (3.07)
10	인도네시아	43,101 (6.15)	48,189 (6.16)	42,969 (5.73)
	전체	701,170	782,264	749,477

자료: GTA

나. 한-싱가포르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 싱가포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경제위원회 발족, 『7대 장기 성장전략』 수립
 - 양국 미래발전계획 이행에 있어서 Win-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 아젠다 도출

〈미래경제위원회의 7대 장기 성장전략(2017년)〉

1. 국제 연계성 심화 및 다각화(Deepen and diversify our international connections)
2. 심도 있는 기술 습득 및 활용(Acquire and utilize deep skills)
3.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Strengthen enterprise capabilities to innovate and scale up)
4. 우수한 디지털 역량 구축(Build strong digital capabilities)
5. 활기차고 연계된 기회의 도시 개발(Develop a vibrant and connected city of opportunity)
6. 산업혁신지도 개발 및 구현(Develop and implement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7.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 관계 강화(Partner each other to enable innovation and growth)

자료: Th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 2017

○ 신성장 전략 산업의 육성·혁신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 한국과 싱가포르는 디지털 선진국이자, 첨단기술 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동반자임
 - 양국은 **경제 발전전략 중점 분야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미래 글로벌 디지털 산업 혁신 대열에서 선두주자 입지를 강화해야 함

〈싱가포르의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전기전자	석유화학	- 4차 산업 분야 기술 협력 * ICT, AI, 사물인터넷, 바이오·의료 등
생의학	정밀기계	-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질서 구축 * RCEP, 한-싱FTA 등 시너지 - 스마트시티, 제3국 공동진출 협력 * ICT, 핀테크(금융) 등
물류	항공우주	- 항공MRO 산업 협력 * 기술, 인력 개발 및 산업 발전
ICT	에너지/인프라	- 효율적 에너지 시장 구축 협력 *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료: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사이트(www.edb.gov.sg)

- 양국은 보다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협력 범위를 순조롭게 넓혀나가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이후의 국가경제전략 수립을 위해 'Emerging Stronger Taskforce'를 구성(2020년 5월), △로봇공학, △전자상거래, △환경 지속가능성, △공급망 디지털화 등 주요 성장분야 육성 신규 아이디어 도출 계획인 바, 향후 양국 협력에 있어서 관련 분야로 범위 확대 검토

〈최근 한국-싱가포르 양국 정상회담 MOU 체결 내용〉

MOU 명칭	주요 내용 및 의의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2018년 7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의료 등 공동 R&D 추진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2018년 7월)	RCEP 타결 공조, 한-싱 FTA 이행 점검 등
스마트그리드 협력(2018년 7월)	에너지저장, 스마트빌딩 등 스마트그리드 협력
LNG 도입물량 상호교환 협력(2018년 7월)	한-싱 대표 가스기업 간 LNG 물량 교환, 정보공유 등
스마트시티 제3국 공동 진출(2018년 7월)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에 양국 기업 참여 확대
스마트시티 협력(2019년 11월)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술, 통합시설 관리, 지속가능 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술교류, 정보공유 및 시범사업 추진
표준화, 법적계량, 적합성평가 및 기술규제 관련(2019년 11월)	신기술 관련 표준화, 계량, 적합성 평가 및 기술규제 관련 협력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2019년 11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법률·규정 관련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사이버보안 협력(2019년 11월)	사이버보안 전문가 교류 및 정보공유, 교육 훈련을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자료: 대한민국정부

○ 긴밀한 한-싱 공조관계 기반, 글로벌 협력 체계로 확대

- 한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경제구조 상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연결성 및 상호의존성 유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다자무역체계 전제 필요
 -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대응과 관련하여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범국가적 공조 체계 구축 및 다자적 대응 필요성 대두**
- 글로벌 주요 경제·외교 현안 등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기반으로 한-싱 협력에서 한-아세안 등 보다 넓은 지역 범위 내 **우방국 간 협력체계로 확대 노력**
 - 한국과 싱가포르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전망 가운데, 역내 교역·투자·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 모색
 - 또한 교역뿐만 아니라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국제협력, 아시아 개발 협력, 글로벌 혁신 연합 발족 등으로 싱가포르 기업과 해외기업 간 혁신창출 연계 추진 등 협력범위 다각화

〈2020년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 입장〉

권역	내용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관련 아세안 내 관련 정보 교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 생활필수품, 식료품, 의료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 유지 및 강화 노력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서는 교통, 공급망 연결 등과 같은 글로벌 연계성의 유지가 핵심 (2020년 4월 17일 '필수적 글로벌 연계 유지에 대한 코로나19 장관급 국제협의를 공동선언'* 중) *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브라질, 독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13개국 참여
다자무역체제	-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RCEP를 조속히 타결해야 함(2020년 6월 26일 리셴룽 총리,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 발언문 중) - 싱가포르와 같은 소국에게는 주권국 모두가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규칙 기반의 다자질서 체제가 필수적(2020년 6월 22일 외교부 장관 Vivian Balakrishnan, 대국민 연설 중)

<p>미·중 무역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이 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임. 양국은 때로 특정 사안들에 대해 격렬하게 경쟁할 수도 있으나,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규칙에 기반 한 다자 체제 하에서 경쟁을 이어나가길 바람 · 또한 미·중은 여타 국가에 대해 자국의 가치 제안을 이어가는 한편, 적어도 상당부분 인위적으로 조성된 이분법 하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2020년 6월 19일 외교부 장관 Vivian Balakrishnan, France 24와의 인터뷰 내용)
<p>미국 차기 행정부에 대한 조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같이 오바마 전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미-아시아 관계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의 차기 행정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외교 정책을 입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차기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복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2020년 7월 28일 리센롱 총리, 미국 Atlantic Council 주최 싱크탱크 담화 내용)

자료: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작성

2.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협력 분야·범위 확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관계

□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 (정책 수요)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에 맞서, 통상 체제와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 다대

* △글로벌 수요 둔화,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차질, △부채 급증 및 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불평등 심화, △국가 간 인력이동 제한 등

- 양국은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공정한 교역질서를 구축하는 등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싱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보다 넓은 지역 범위 내 **우방국 간 협력관계 확대 모색**,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여 교역 및 투자 활성화

- (협력 방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가속화 등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 참여국: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싱가포르에 있어 경제 블록과의 안정적인 교역 투자 기반 확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및 기대효과

○ 주요 진행경과

- *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
- * (~2019년 10월 말) 28차례 공식 협상, 7차례 회기간 수석대표 회의, 16차례 장관회의 진행
- * (2019년 11월 4일) 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 회원국 협정문 타결 선언
- * (2020년 6월) 협정의 법적 검토와 협의를 추진 중이며, 제 10차 회기간 수석대표 회의 통해 연내 서명 의지 재확인

○ 협정문 주요 내용

- * △최신 무역규범 확립, △무역 원활화 기반 마련,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등

○ 주요 의의

- * RCEP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밸류체인 구축과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우리나라 최초의 Mega FTA로 세계 인구 절반과 GDP 1/3 차지 거대)
- * 신남방 정책 이행의 핵심 기반 마련, 상품시장 추가 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국민·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자료: KOTRA「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보고서

□ 상호 시너지 활용 미래 신산업 및 스마트 혁신 협력

○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의

- (정책 수요) 양국 정부는 **신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상용화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 하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희망**

· 싱가포르는 기술산업혁신도(1위), 디지털경쟁력(2위), 4차 산업혁명 준비도(2위) 등 혁신 역량을 보유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서 양국 협력 시너지 기대

- (협력 방안) **바이오·의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 분야 공동 개발**을 위한 양국 공동펀딩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 첨단 기술 세미나, 인력 교류 등 협력 추진 필요

2021년 한-싱가포르 글로벌스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첨단기술 분야 양국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
 - *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 양국 컨소시엄(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이 공동으로 개술개발 협력 시, 양국 정부가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 유레카 글로벌스타 사업을 통하여 싱가포르를 포함한 공고 참여국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 공고 참여국: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플란더스), 캐나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책 수요)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디지털 통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확충 필요
 - 특히 디지털 연결성은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바,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무역 기반 합의 필요
- (협력 방안) 2020년 6월 22일 개시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행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공동 각료성명 주요 내용

- 디지털 시대에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약속
- 양국 경제, 비즈니스, 사회의 디지털로의 전환은 단기적 경제 성장을 견인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취를 돕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강화하며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임
- 금일 우리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현재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KSDPA 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할 것을 희망함
- 2020년 말까지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기대함

□ 미래 에너지 산업 공동 육성

- (정책 수요) 석유·원자력 등 전통에너지에서 LNG 등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과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한 미래 에너지 산업 개발을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필요
- (협력 방안) 에너지자립섬*,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아세안 및 제3국 공동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한국은 신재생과 ESS를 연계한 에너지자립섬 모델을 도입·운영 중이며, 현재 총 56개의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 추진 중

- 추가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LNG 수급을 위해 도입물량 상호교환 협력, 인수기지·배관망 운영 정보 공유, 벙커링 사업 공동연구개발 협력 기대

* 한국가스공사-싱가포르 Pavilion Energy 간 LNG 도입물량 상호교환 협력 MOU 추진(2018년 7월)

한-싱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 양국 산업부 주도, ESS·태양광 2개 분야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추진(2019년 5월)
 - * ESS: 밀폐구역 및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 화재안전/냉각방법
 - * 태양광: 비용 효과적인 소규모 태양광(루프탑 태양광), 보급형 태양광(수상태양광) 등
- 한-싱가포르 간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차원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의료 분야 상호보완적 협력 및 아세안 제3국 공동진출 추진

- (정책 수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전염병에 대해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불충분** 하고, 범국가적 공조 체계 및 다자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
 - 특히 국가 간 전염병 진단역량 강화협력,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생산·유통, 방역 노하우 공유 등에서의 협력 기회 확대
- (협력 방안) 한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K-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바이오테크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음. 또한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과 연구개발 역량에의 자부심이 있으며, 아세안 시장으로의 높은 접근성을 갖춘
 - 이러한 양국의 강점을 상호 보완하여, △첨단 의료기술 공동 연구개발 통한 시너지 창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제3국에 첨단 스마트병원 등 의료시설 공동 설립 투자 및 의료진 파견 협력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 소비재(온라인)

- (시장 수요) 싱가포르는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가 많은 특성상, **화장품·고가제품 등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괄목할 성장을 기록함**
 - Qoo10, Lazada, Shopee 등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경쟁함으로써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
 - * 전체 소매유통 2017년 대비 2.5% 성장, 온라인 45.2% 성장(2023년까지 56억 달러 전망)
 - * 싱가포르는 동남아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의 거점지역으로 Qoo10이 1위 시장점유율(3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Shopee(5%), NTUC FairPrice(4.8%), LAZADA(4.1%) 등이 있음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 잠재력

- 싱가포르의 해외 온라인 쇼핑물 이용률은 73%로, 홍콩(75%) 다음으로 높으며, 말레이시아(40%), 한국(25%), 일본(18%) 보다 커, 앞으로도 해외 판매자와 해외 소비자간 직접 거래(Cross-border e-commerce)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 이커머스 시장 규모, 2017년 전체 소매의 5.3%에서 2022년 10.3%로 상승 기대 특히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모바일 결제와 전자결제 수단 사용 증가에 따라, 매년 13%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싱가포르 전체 온라인 시장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역량)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최근 5년간 대(對) 싱가포르 수출이 **175% 증가**, 유아용품,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전반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류(Hayu)의 영향으로 현지 뷰티 블로거·유튜버들이 한국식 화장법 튜토리얼, 화장품 리뷰 등의 콘텐츠를 다루면서 K-Beauty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으며 비디오 콘텐츠(Youtube, Instagram)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음
- (협력 전략)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 잠재성을 감안, 동남아시아 교두보로 활용**
 - 현지 대표 온라인 유통망과 연계한 국내 기업 제품 소싱·판촉 지원

온라인 유통망 - 국내제품 소싱·판촉 지원

- 싱가포르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Qoo10, Lazada, Shopee 3개사*와 함께 Korea Sales Festa(KSF) 연계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 국내제품의 싱가포르 입점 지원
 - * 시기/장소: 2021년 10월 중/온라인 플랫폼 물
 - * 주요 내용: 소비재 중심 화장품, 식품, 의류 등 국내 기업 판촉 지원
 - * 기대 성과: 온라인 입점을 통해 향후 안정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 정착 기대

〈싱가포르 온라인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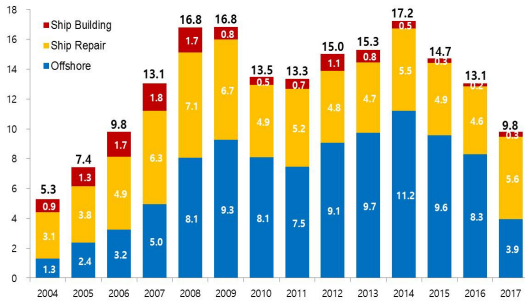
기업명	매출액	플랫폼 특징	한국제품 입점 비중
Qoo10	S\$ 5억	연간 1,600만 명 방문하는 No.1 플랫폼	전체 매출의 30%
Redmart	S\$ 4억	싱가포르 식품분야 1위 플랫폼	전체 매출의 5%
Shopee	S\$ 2.5억	2015년 설립된 기업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 중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 제조업(조선해양, 조선기자재) 협력

- (정책 수요) **싱가포르는 LNG 산업 가능성을 주목하여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 국제항만 LNG 벙커링 협의회*(2016년 9월 구성) 정기회의에 참여(2017년 4월)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LNG 벙커링 기준 마련 중
 - * 싱가포르, 울산항, 로테르담, 앤티워프, 잭슨빌, 상해 등 11개 항만 참여
 - 싱가포르 정부,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전환 시 척당 최대 약 15억 원 제공, 등록세(50%)·톤세(20%)·항만사용료(25%)를 감면해 주는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해양항만청(MPA), LNG 선박 8척 건조(1천 8백만 싱가포르달러), LNG 벙커 선박개발(6백만 싱가포르달러) 등에 총 2천 6백만 싱가포르달러 투자
- (시장 수요) 2014년 이후 국제 오일가격 하락, 조선해양플랜트 발주량 감소로 하양세를 보이다, **최근 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조선 시장이 급부상함**
 - * IMO 규제: 선박 배출 오염물질 감소(2020년) 및 선박평형추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2024년) 등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수리 목적으로 기항한 선박수가 3,762척(2016년) → 3,507척(2017년)으로 감소했으나 시장 규모는 오히려 증가함
 - * 2017년 싱가포르 선박수리 규모 56억 싱가포르달러 기록(전년 대비 21.4% 증가)

〈싱가포르 조선해양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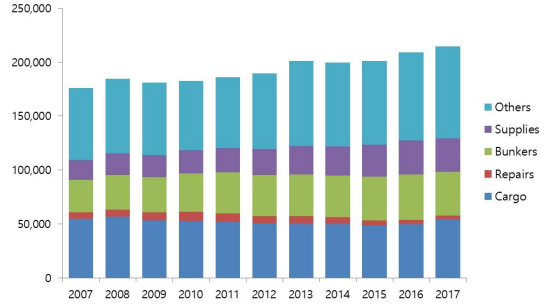
(단위: S\$10억)



자료: Association of Singapore Marine Industry

〈싱가포르 기항 목적별 선박 수〉

(단위: 개)



자료: 해양항만청(MPA)

○ (협력 체계) 현지 선주사 및 조선소 대상, 국내 기업들과 네트워크 지원

Korea Marine Day 2021 개최

○ 아시아 최대 조선기자재 전시회인 'Asia-Pacific Maritime 2021'과 연계하여 국내 기술력 및 산업 동향 공유, 글로벌 선사·엔지니어링 업체와 비즈니스 상담 지원

- * 행사명: Korea Marine Day 2021(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설명/상담회)
- * 시기/장소: 2021년 3월 중/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Convention
- * 기대 성과: 잠재 바이어 및 파트너사 발굴, 기존 거래처 관리를 통한 수출 확대

다. [B2G] 미래형 도시 인프라 개발 참여

□ 토목 건설 인프라 분야

○ 정책 수요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중장기 미래국토개발 계획인 '육상교통 종합 개발 계획(Land Transport Master Plan: LTMP) 2040' 수립, 인프라 건설 협력 수요 증가
 - LTMP2040에 따르면 Jurong Regional 지하철노선과 Cross-Island 지하철노선의 추가로 기존 총 229km의 노선을 2040년까지 360km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10년 간 철도망 정비를 위해 600억 싱가포르달러 예산을 투자할 계획임에 따라 지하철 공사 뿐만 아니라 지하철 차체 및 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까지 확대 가능
 - * Thomson-East Coast Line(TEL) 정비, North East Line Extension과 Downtown Line 확장, Jurong Region Line(JRL) 정비, 도시철도(MRT) 순환선 완공, Cross Island Line 1단계 완공, North-South and East-West Lines 업그레이드
- 이 외에도 LTA는 민·관 간 협력 통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신호등 관리 시스템 및 수요기반 공공버스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급행열차 메가 프로젝트 재개 전망
 - 말레이시아 재정상황 및 코로나19로 지연된 **조호바루-싱가포르 급행열차(RTS) 프로젝트** 최종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 본격적으로 착공될 전망

- 또한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를 90분 내로 연결하는 고속철(HSR) 프로젝트 또한 올해 말 협상 완료 전망

* 싱가포르 리센롱 총리, 올해 말 상-말 고속철의 사업변경안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협력방안**

- 메가 프로젝트 계획 및 착공 현황 조사 및 정보 발굴
 - 조사내용 :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시장동향, 발주처, 현지 파트너 정보 등 조사 추진
 - G2G 협업 : KOTRA·국토교통부 주도로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청, 육상교통청 등 발주처 초청 교류를 통해 비공개 프로젝트 정보 수집 발판 마련

□ **스마트시티 분야**

○ **정책수요**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개발 노하우를 활용, 국가 주도로 도시 교통·수처리·공공 데이터 등 각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중
 -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① 생산성 향상, ②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③ 노령화 인력 지원, ④ 국가 정체성 강화 등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14년 11월 ‘스마트네이션플랫폼’ 구축 계획 선포
 - * 스마트네이션: 싱가포르 전역의 센서 네트워크화, 전역에서 수집된 빅데이터의 AI 분석을 통해 교통, 에너지, 의료 등 공공 부문의 효율성 개선 목표
- 2020년 5G 네트워크 도입 및 ICT 기반 풍골디지털지구(PDD) 구축 등을 앞두고 교통·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스마트시티 기술 협력 수요 증대

〈스마트네이션 추진 분야〉

분야	세부내용
Strategic National Projects	전자결제, 디지털신원, 스마트 국가 센서, 스마트 모빌리티 등
Urban Living	스마트 노인 경보시스템, 스마트 타운 조성 등
Transport	자율 주행차 등
Health	의료용 로봇, 원스탑 헬쓰허브 등
Digital Government Services	OpenCerts(블록체인 기반 인증플랫폼) 등
Startups and Business	핀테크 샌드박스, PDD(풍골디지털지구) 등

주: SNDGO

○ **협력방안**

- 국내 기업의 현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 및 국내-현지 파트너십 창출
 - 타겟 분야 : 스마트 타운 조성 및 PDD(풍골디지털지구), 스마트 교통 인프라
 - 지원 방안 : ① 프로젝트 정보 전파, ② 국내전시회/수출상담회 전략적 발주처 방한 초청, ③ 발주처와 선별된 국내 기업 초청 핀포인트 상담회 추진

2021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포럼 개최

- 싱가포르 교통·환경·도시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국내 기업과 현지 주요 발주처·조달 에이전트 간 1:1 상담회,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현황 발표 세미나 추진
 - * 행사명: 2021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포럼
 - * 시기/장소: 2021년 상반기/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Convention
 - * 주요 내용: 국내 기업 10개사 내외, 발주처·조달 에이전트 20개사 내외 상담회/세미나
 - * 주요 분야: 스마트 교통 인프라 개발, 도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스템, 스마트 타운 등

라. [국민]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관심 증진

국민 간 교류 확대는 양국 경제협력 및 미래 관계발전의 토대로서 접근,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관심 증진 위한 문화 연구 교류 확대 필요

□ 디지털 콘텐츠 활용 국민 간 교류 확대

- 2020년도 초부터 코로나19 국경 간 이동제한으로 양국 국민의 직접 이동은 어려워졌으나, 대신 **디지털 콘텐츠와 SNS를 통한 교류 기회가 확대됨**
 - 특히 코로나19 봉쇄조치 기간 중 한국 드라마, K-pop, 달고나 커피 챌린지 등 한류 콘텐츠와 최신 트렌드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확산
 - * 이러한 문화 경험은 한국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싱가포르 단기방문허용 제도(트래블 버블) 우선협상 희망 국가 설문조사(The Straits Times) 결과, 한국이 응답 수의 40.7%로 1위 차지(2위 일본 17.7%, 3위 태국 16.9%) → 입출국 제한 완화 시 실제 한국 인바운드 관광 증가 기대
- **국민 개인 단위의 교류 확대 및 한국을 향한 긍정적인 인식**은 한국 음식, 패션, 대중문화, 뷰티 등에 대한 한국제품 소비 진작으로 연결되며, 우리기업의 수출기회 증가 및 **양국 관계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짐
 - 한-싱 문화 교류를 위해 유튜브, SNS 채널 활성화, 한류 및 트렌드한 한국 청년문화에 대한 주요 미디어 노출 지원 고려 가능
 - 또한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원 외 K-Beauty, K-Pop 등 한류 콘텐츠(영화, 춤, 노래, 화장 등) 등 국민의 교류 확대 프로그램 기회 신설 및 확대

□ 미래 유망산업 분야 인재교류로 연구 및 지식공유 협력

- 첨단과학기술 등 양국 미래 경제발전 육성 분야 있어서 청년인재 유학교류, 연구원 공동연구, 공무원 공동연수 협약을 활용, 국민 간 미래 육성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교류 확대로 시너지 창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한-싱 인력교류 포함 MOU 체결내용〉

한국	싱가포르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부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KOICA	외교부	양국 인적자원 개발 및 개도국 무상 협력사업 추진
에너지기술평가원	EMA	스마트그리드, 태양에너지 등 기술분야 공동연구
경기도	ESG	양국 투자진출 시 정보제공 및 행정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과학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법률·규정 관련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안보청	사이버보안 전문가 교류 및 정보 공유

3. 향후 대(對) 싱가포르 K패키지 실행체계(안)

□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한)산업통상자원부 - (싱)통상산업부(MTI) 주도, 경험 이행위 연 2회 개최
- 양국 정부·기관·기업 간 체결된 주요 MOU 등의 가시적 성과 달성과 상호 협력 가능한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원 필요

〈한-싱가포르 분야별 경제협력 이행위원회(안)〉



〈한-싱가포르 상생협력 요약〉

<p>싱가포르의 공급 가능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내 비즈니스·투자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 전체 FDI의 53% 차지 ○ 지정학적 요충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 시장진출 교두보 ○ 넓은 경제영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국으로서의 취약성 보완을 위해 25개국과 FTA 체결 ○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도입 등 유연한 제도 	<p>한국의 수요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G2 수출선 다변화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對) 중·미 수출의존도 40% 육박 ○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50% 수준 수출규모 달성 목표 ○ K-스마트시티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서남아 등 ○ 비즈니스 전략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강화
<p>싱가포르의 수요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대상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경제의존도 ↓, 보호무역 대응 ○ 스마트시티 제3국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등 분야, PPP ○ 4차 산업 분야 기술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5G, 핀테크(금융) 등 ○ 효율적 에너지 시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p>한국의 공급 가능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진출 전 세계 상위권 ○ 스마트시티 시공능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인프라, ICT 등 ○ 높은 전문기술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 경제발전·해외진출에 풍부한 경험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정예은	과장	싱가포르무역관	+65 6426 7205	yennych@kotra.or.kr

KOTRA자료 21-063

2021 국별 진출전략 **싱가포르**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1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776-2(93320)
979-11-6490-686-4(95320)(PDF)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